



고창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

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는 21일 2층 회의실에서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긴급구조통제단의 부별 명확한 임무 부여와 재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대응 조치로 대원들의 신속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소방서는 고창읍에 위치한 고창군농산물유통센터에서 대원들이 화재 발생 시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통제단 가동 단계별 현장 상황에 따른 조치 △각 부별 기능별 주요 임무수행 △상황판리, 기록유지 강화 △재난복구 및 수습 △훈련 미비점 발전 방향 논의 등이다.

신현호 대응예방과장은 "질결과 같은 훈련으로 직원들이 임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재난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바란다"며 "대원 모두가 훈련을 통한 현장대응역량 강화로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소방서, 대상공정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훈련

순창소방서는 21일 (주)대상순창공정에서 소방 60명, 관계자 50명과 차량 20대가 동원된 가운데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기능숙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주)대상순창공정장 소방합동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한 불시 불제단 기능숙달 훈련으로 긴급구조통제단의 각 부(반)별 명확한 임무 부여와 주어진 재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대응조치로 대원들의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공장 화재의 위험성을 대비하여 순창군 순창읍 소재 대상공장 화재로 다수수상자 발생한 상황을 설정하여 △선착대장 최초 상황전파 및 지휘관선언 △인접소방서 동원장비 지원요청 △현장 상황 판단회의 및 브리핑 △다수수상자 발생 대비 응급의료소 운영 및 응급 의료체계 요청 △통제단 임무별 역할 점검 및 훈련메시지 처리 능력 향상 등이다.

이상일 소방서장은 "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가정한 무가본 훈련을 통해 임무 수행 절차를 확실하게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황별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은행, 법인카드 사용 적립금 4150만원 전달

전북은행은 지난 20일 JB금융그룹 전북은행으로부터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 적립금 415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전상익 전북은행 부행장, 김태식 정읍지점장, 국중만 정읍시청지점장이 참석했다.

적립금은 시와 전북은행이 협약을 통해 법인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액의 1%를 발전기금으로 적립한 것이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3억 1710만원의 적립금을 전달받아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 시민의 복지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학수 시장은 "전북은행이 장학금 정기 기탁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익 부행장은 "시민들을 위한 특화된 금융 상품과 다양한 금융 정보 제공 등으로 더욱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대환기자

흰구름어르신학당에 서예 목향이 퍼지다

진안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서예교실 운영

춘삼월 새봄이 되자 진안군 백운 땅에 향기로운 목향(墨香)이 퍼졌다. '살아온 백운에서 건강한 노년'을 목표로 2022년 면민들로부터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 작년부터 면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열었던 '흰구름어르신학당'에 '서예·목향교실'을 추가로 연 것이다.



서예교실은 수차례 전북특자치 대회와 전국대회 등에서 수상 경력을 갖춘 '삼촌 고수' 면민을 강사로 모시고 지난 3월 7일 흰구름복지센터에서 개강했다.

9명의 백운 어르신이 참여한 수업에 앞서 협동조합 이장인 이시장은 "재미있는 서예교실에 많은 분이 찾아주시는데 감사하며, 틈틈이 시간 내서 붓글씨를 써주시길 바란다"고 수업계획을 설명했다.

농부이기도 한 이한석 서예 강사는 "백운면 어르신들께 재능나눔을 위해 일할 시간을 쪼개 강사로 나서게 되었고 글씨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해서', '행서', '한글 궁체'까지 배우보자"고 수업계획을 설명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간씩 8개월간 서예교실을 열 예정이며, 백운면민의 날 붓글씨 작품을 전시할 계획도 세웠다.

붓을 처음 잡아본다는 한 면민은 "나이 들어 취미 하나도 없었는데"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남원 도통동, 복지기동대원 11명 위촉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은 21일 오전 11시, 2024 전북형 지역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1명을 '복지기동대'로 위촉했다.

도통동 복지기동대란 동 인적안전망 활용을 통한 전북형 지역보호체계 구축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해소 및 생활민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저소득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기동대는 올 3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및 기타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50만원 이내의 주거 수리·개선·점검에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 협의체의 서덕교 위원장은 "복지기동대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으며, 소선자 동장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생활민원서비스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 "민간의 협동으로 주민 생활에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생활민원서비스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임실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이 3월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캠핑장 인근에서 무료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숲 해설 프로그램은 지역 숲 알기, 나무와 대화하기, 나무 특성 배우기, 숲속 놀이, 숲 계곡 생태계 알기 등으로 진행된다.

단체는 별도 일정을 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s://www.imsi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옥정호 봄여상에서도 숲 해설 프로그램이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오후 2시에 동시 진행된다.

캠핑장 위탁운영을 맡은 두산임업(유) 황중하 대표는 "숲 해설업 등록 회사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3월 첫 주부터 숲 해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보다 의미 있는 생태 체험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체험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 해리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은 최근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해리농협은 조합원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 조합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조합원 자녀들 가운데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선발했으며, 새롭게 출발하는 11명의 지역인재 학생들에게 총 11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갑선 조합장은 "장학금에 힘입어 청년들이 본인의 분야에 전념하며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 창고를 지키는 농업인 조합원 자녀로서 자긍심을 갖고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밝힌 인재로 성장해 가길 응원하며 조합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진안군, 암 예방의 날 맞아 홍보 캠페인 전개

진안군은 '제17회 암 예방의 날(3월21일)'을 맞아 19~20일까지 암 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암 예방의 날 홍보와 함께 암 예방의 첫걸음인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인 70세 이상 초·중·고생들은 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검진을 받을 것과 금연, 금주, 균형 잡힌 식사 등 암 예방을 위한 10가지 생활 수칙을 꼭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 보건소 담당자는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 예방과 더불어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조기검진이 효과적"이라며 "적기 검사와 더불어 10대 수칙을 실천으로 진안군민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기자



남원시, 암 관리 사업 평가 분야 도지사 표창

남원시가 제1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2023년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평가 분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남원시는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1:1 유선 안내, 문자 및 우편발송 등을 실시한 결과로 2022년도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23년도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는 등 2년 연속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올해도 국가암검진 및 건강검진 수검률을 위해 각 보건사업과 연계해 홍보하고 있으며, 국가암검진 사업 이외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면 보건소(620-7953, 7955)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암관리·건강검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은 21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제1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2023년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북지역 암관리사업 성과평가로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 암 및 일반검진 수검률 및 암 예방 홍보, 우수사례 항목 등을 평가했으며, 순창군의 경우 2021년 최우수기관, 2022년 우수기관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아동복지기관협의회 회의

남원시는 21일, 제1차 아동복지기관협의회(위원장 차미화)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아동 복지서비스 연계·조정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아동과 가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동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기구로 보건·복지·보육(교육) 분야의 실무자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고, 논의된 회의 내용은 지역자립 개발과 사업 운영 과정 및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에 활용된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농협, 제1기 여성대학 개강식 열어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최근 여성대학 개강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남원농협 여성대학은 남원에 거주하는 여성 110여 명이 참여해 총 12주 과정으로 여성 리더십 건강 및 가정관리, 농협 사업의 이해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고, 고창·주부 모임 및 지역 사회활동과 연계되는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기열 조합장은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준비한 남원농협의 첫 여성대학이 성공적으로 문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